
경계 세계에 놓인 불안한 존재들의 환부의 의미: 이청준의 「퇴원」, 「병신과 머저리」를 중심으로

김효은 (경희대학교)

I. 서론

1965년 12월 『사상계』에 「퇴원」으로 등단한 이청준은 2008년 타계하기까지 4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꾸준하게 작품의 수준을 이어온, 문학사에 몇 안 되는 이례적인 작가로 높이 평가될 만하다.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창작 활동기간 동안 태작과 휴지기 없이 이어온 그의 문학적 행보는 살아생전에 이미 거장으로서 우리 문학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사이 작품 세계, 작품의 경향이나 소재, 형식적인 특성과 특질 등이 달라져 왔음에 분명하나 이청준의 소설들에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되는 존재론적 질문들이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이는 논자들에게 의해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 언어, 예술, 전통과 장인의 문제, 지식이나 관념 또는 자유, 불안과 관련된 원체험적 요소 등으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이러한 궁극의 존재론적인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애당초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을 소설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일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과 좌절, 고민과 탐구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청준의 글쓰기는 자체로 우리 소설사에서 메타적인 실험과 성찰의 한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의식과 탐구정신은 또한 그가 중단 없이 그리고 기복 없이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게 한 글쓰기의 자가발전적 원동력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의 소설의 원형이라 할 만한 요소들은 이따금 변형되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기도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인물들에게서 환부, 질병, 고통과 통증, 외상과 후유증 등의 형태로 무수히 반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초기작에 나타난 은유와 상징으로서의 환부, 병증, 치유 등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함의들을 정치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의 작품세계 전반을 꿰뚫는 그리고 반복되는 단서와 원형, 작가의 세계관과 무의식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본고는 이를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청준의 대다수 작품들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공통된 지점은 다름 아닌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현²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의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타인과 사회로부터 상처받고, 일상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배고픔과 외로움, 불안과 공포를 지닌 불안정한 존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주로 사회로부터 혹은 자기 스스로로부터 배제 혹은 소외당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때에 따라 도피하여 숨거나, 군대에 지원하여 들어가

1. 이청준 소설 전반에 대해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그동안 다수 축적되어 왔다. 김우영은 이청준 소설의 인물들이 근대에 의해 규율화된 신체가 오히려 증상을 통해 억압된 정신과 사유를 고발 및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기괴한 신체를 지닌 인물들과 특정한 증상을 호소하는 인물들을 통해 이청준은 현실을 재현하는 언어의 한계를 형상화하는 한편, 주제와 분절하며 새로운 틈새를 만드는 그로테스크한 신체의 자율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김우영(2014), 「언어와 분석 사이, '행위'하는 몸」, 『민족문학사연구』, 54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질병과 관련한 이청준 초기 소설에 대한 기존논의로 김은정은 「퇴원」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나'의 병명으로 제시되는 「위궤양」과 「자아망실증」을 각각 들뢰즈가 말한 입의 기능인 '먹다'와 '말하다'의 층위와 관련지어 논의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는 욕망에 대한 조직화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난 증후로서의 질병에 해당한다. 이때의 결핍은 '발화되지 못한' 욕구이며 이는 질병명으로써의 의미 보다는 하나의 증후라고 설명하고 있다. 질병이 발화 욕망, 또는 자기표현과 연관된다는 지점은 일리가 있는 논의이나, '발화'되지 못한 욕구와 욕망, 결핍에 관한 들뢰즈의 논의와 이청준 소설의 접점과의 연결망이 이론적으로 촘촘하게 매개되지 못해 아쉽다. 김은정(2018), 「질병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청준의 <퇴원> 읽기」, 『우리말글』, 제77집, 우리말글학회.
2. 김현은 이청준 소설 속의 인물들이 대부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심한 갈등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현(1980), 「이청준에 대한 세 편의 글」,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51쪽.

나, 병원에 입원하여 명목상의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병리적인 인물들에 가깝다. 그러나 주지하건데 그의 소설에서 또 하나 반복되는 인물들의 모습은 이들이 치료를 받고 교화를 받고 휴양을 해도 그들의 상처가 결코 쉽게 낫지 않으며, 증세가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거나 더 모호해지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외부에 의한 것인지 내부에 의한 것인지 명확한 원인과 진단명(환부)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자기를 망각하거나 유폐시키거나 혹은 또 다른 가면 아래로 반복하여 숨어버리는 등, 세계의 폭력과 불합리 모순 등에 크게 맞서 대응하거나 저항하기 보다는 무기력한 회피와 좌절만을 반복한다. 이청준은 부조리한 사회 체제에서 배제 당하거나 혹은 소외된 인물군상을 회화적으로 혹은 사실적으로 그려 낸다. 본고에서는 부권(父權)으로 제유되고 상징된 미시권력에 의해 배제되고 소외당한 인물들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원체험, 환부의 원인과 양상, 기능과 의미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소설의 원형과 모티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푸코는 고전 시대의 대감호에 대한 논의에서 권력의 특징으로 미세함을 언급한다. 권력은 학교나 병영, 병원과 공장, 사람과 사람사이 어느 곳이나 미세하게 존재한다. 또한 이성은 비이성과 광기를 배제하고 감금시킴으로써 폭력을 행사한다. 이청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분명 이러한 권력과 이성, 시선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으며, 규율 아래 감시당하는 등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⁴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양상들을 푸코의 이론적 견해들과

3. 푸코에게 있어 권력이란 말은 특정한 국가 내에서 시민들의 복종을 보증하는 제도와 기구들의 총체로서의 <정권>을 뜻하지 않는다. 권력은 도처에 있다. 이것은 권력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 말하는” 권력이란 그것이 영속적이고, 반복되고, 무기력하고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것인 한, 그것이 그 모든 유동점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뚜렷해지는 전체적 효과, 그 유동성을 하나하나에 기대며 그리고는 반대로 그것들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연쇄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은 제도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며, 일부 사람들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특정한 권세도 아니다.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 1990, 106쪽 참조.
4. 물론 최초의 권력과 폭력, 배제에 의한 트라우마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다. 특히 이청준 초기 소설에서 이러한 외상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데뷔작인 「퇴원」에

정신분석학적 이론 등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⁵ 물론 기존의 논자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청준 소설에서의 인물 혹은 주체의 병리적인 증후와 증상에 대한 독해는 앞서 살펴본 기존논의 등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분적으로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 개진하고자 하는 차별적, 변별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병리적 주체가 겪는 외상의 발현과 증상 자체의 의미보다는 환부의 원인과 양상, 나아가 환부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환부의 원인으로서의 시선과 응시의 분열에 대해 검토하고 환부와 병증이 주체에게 어떻게 작용, 기능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또한 세계와 주체의 경계로서의 환부(병원)의 의미까지 짚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청준의 데뷔작인 「퇴원」(1965)과 초기작인 「병신과 머저리」(1966) 두 작품⁶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서 주인공 '나'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전깃불 체험'으로 대표된다. 이는 거세 콤플렉스로 볼 수 있으며, 소설 속의 '나'의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거세 불안과 위협에 시달리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과 방어기제로써 자원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오히려 현실도피를 통한 자아방각을 자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어느 정도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학위논문으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이승준(2002),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해성(2002), 『이청준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대일(2003), 『이청준 소설의 죄의식과 고백 양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소정(2007), 『현대소설에 나타난 심리적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이청준, 오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등이 있다. 소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있다. 김지혜(2010),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징후적 '배앓이'와 타자의 시선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8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채대일(2012), 「이청준 〈퇴원〉 연구 - 포트 - 다 놀이 하는 주체」, 『시학과 언어학』, 제22호, 강준수(2015), 「〈에쿠우스〉와 〈퇴원〉에 나타난 정신적 외상」, 『외국문학연구』, 제59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서영채(2016), 「가해자의 자리를 향한 열망과 죄책감」,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호, 한국현대문학회.
6. 이청준의 데뷔작인 「퇴원」(1965)과 초기작인 「병신과 머저리」(1966) 두 작품을 대상으로 다룬 소논문에는 장영우의 「경험적 사실과 허구적 진실」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청준 소설에 등장하는 의사와 작가 등의 직업군의 인물들을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탐색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작가가 경험적 사실 보다는 허구적(심리적) 진실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논의한다. 그러나 「퇴원」의 경우 "정상적인 의사 소통을 통한 부자간의 화해를 주제로 한 작품"이라고 일반화한 논의한 부분은 납득하기

II. 본론

1. 환부의 원인으로서는 시선과 응시

두 작품에서 인물들의 시선 혹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열되어 있다. 「퇴원」에서는 감시하고 억압하는 아버지의 시선과 그러한 감시와 억압이 내면화된 '나'의 시선, 「병신과 머저리」에서는 소설 속에서 작용하는 오관모의 시선과 형의 시선 그리고 현실 속의 세계와 소설 속의 세계를 바라보는 동생의 시선이 그렇다. 시선은 '시선들'을 복제하고 그 시선들에 주체를 복속되도록 가둔다.

푸코는 모세혈관과 같은 권력이 감시체계를 통해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곳까지 미치게 된다고 보고, 이러한 감시 장치의 원형으로 파놉티콘이라는 근대 감옥 장치를 들어 설명한다. 이 원형감옥의 구조는 단 한명의 감시자가 중앙탑에서 내려다봄으로써 수많은 수감자들이 스스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시적인 감시의 통제가 없는 경우에도 권력의 의지한 바대로 행하게 만든다. 이러한 '일망감시체계'는 수감자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이러한 감시의 시선은 복제되어 자기 안에도 감시망을 두게 된다. 이러한 거대한 외부의 시선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며, 내면화된 자기 안에 작동되는 미시의 감시카메라 즉 내재화된 시선은 외부의 시선에 의해 '복제된' 또 하나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를 감시하는 시선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과 그러한 '나'를 끊임없이 통제하는 시선이 바로 복제된 시선인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분열된 주체이고, 시선은 분열된 주체 안과 밖에 중층적 구조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시선의 작용과 감시와 감독 및 검열은 주체로 하여금 병증을 앓게 한다. 그러나 과연 병증을 앓게만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퇴원」에서의 주인공 '나'는 오히려 스스로 자원하여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어렵다. 또한 두 개 텍스트의 접점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비교학적 연구로도 보기 어렵다. 장영우(2009), 「경험적 사실과 허구적 진실」, 『동양어문학』, 제52집, 동양어문학회.

그러한 시선에 노출되기를 자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의 시선은 병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치유, 내·외적 고통을 상쇄시키거나 주체로 하여금 증상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이를 초월하게 하는 긍정적 차원의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시선과 관련하여 아버지라는 타자의 시선은 강력한 초자아⁷에 해당하며, 이는 검열, 감시 체계의 형태로 존재한다. 아버지의 부재는 부재 자체로서 하나의 강력한 시선을 부여한다. 부재는 때로 존재보다 확고하게 의식을 장악한다. 비어있음으로 오히려 자리매김을 또렷하게 하는 부재리는 확연한 현존의 가능태와 잠재태인 그림자는 언제나 실체와 맞닿아 있다. 이청준의 소설에 있어 아버지는 일종의 그림자이자 전깃불이며, 감시하는

7. 프로이트에 의하면, 거세 콤플렉스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대상을 금지시킨다. 거세 불안은 아이에게 잠복기의 발달이 되고, 초자아의 형성을 재촉한다. 거세 불안을 일련의 외상 경험 속에 위치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는 대상의 상실이나 분리-포유(哺乳), 이유(離乳), 배변이라는 순환 속에 있는 젓가슴의 상실이라는 요소가 개입한다고 한다. 또한 거세 콤플렉스 이론의 특징 중 하나로 자기에에서의 영향력을 들 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남근을 자아 이미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협은 그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위협의 효력은 남근의 우위와 자기에 대한 상처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되어 있다. 장 라플랑슈, 장 베르트랑 퐁탈리스(2006), 『정신분석 사전』, 임진수 역, 열린책들, 37쪽. 이청준의 데뷔작 「퇴원」에서 자아망실에 빠진 주인공 '나'가 경험한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광속에 감금됐던 기억은 이러한 거세 콤플렉스를 강화한 외상적 기억으로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나'가 광속에서 어머니와 누이의 속옷에서 부드러운 행복감, 안정감 등을 느끼며 잠들었다는 것은 일종의 자궁회귀의 대리 만족이며, 어머니의 젓가슴으로 상징되는 모성애의 고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아버지에게 의해, 산산조각 내어지고, '나'는 광속에 감금되며, 이들 간 끊겨지는 허기와 폐쇄 공포를 체험하게 된다. 보통 문학 작품에서 남근은 뱀 등으로 상징, 치환되는데, 주인공 '나'가 군대 시절, 뱀잡이에 골몰하고 뱀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그로 인해 상관들에게 포상 받으며 느끼게 되는 안락감과 쾌감은 아버지의 거세 콤플렉스로 인한 불안감 상쇄를 통한 일종의 자기에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뱀으로 상징되는 남근을 보다 많이 포획하여 보유하고 상납함으로써 그로 인해 누리는 혜택들은 이러한 거세 불안에 대한 자기 해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스윤에 의해 이 같은 기억을 되찾아냈다는 것은, 자아망실의 상태에서 자아회복으로 가는 치유의 첫 단계에 주인공이 발을 내 디딘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는 퇴원을 하게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퇴원과 입원의 경우, 주체에게 외상이 반복 혹은 재현된다면, 언제든 되풀이될 수 가능성이 항존한다.

시선이자 등장인물인 '나'의 의식과 무의식에 맞닿아있는 실체이다. 아버지의 눈으로 표상되는 이러한 내·외적 시선은 수치심과 공포와 불안을 한꺼번에 야기한다. 이청준의 작중인물들은 특히 소년일 때 외부의 시선과 폭력에 의해 상처받고 감시 받으며, 억압당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유는 관찰하는 자의 눈에 줄곧 감시되고 예속된다. 감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빈번하게 자기 자신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가면 아래로 숨어버리는 것이다. 「퇴원」에서 아버지는 육체적인 감금은 물론 '나'에게 '이들을 굶겨봐도 배고픈 줄 모르는' 독한 놈이라고 규정하고 '친구의 발바닥이나 뺨을 놈'이라는 등의 언어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는 강압적 존재로 묘사된다.

소학교 3학년 때 가을, 나는 그 즈음 남몰래 즐기고 있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광에 가득히 쌓아 올린 벚섬 사이에 내 몸이 들어가면 꼭 맞는 틈이 하나 나 있었다. 나는 거기다 몰래 어머니와 누이들의 속옷을 한 가지 두 가지씩 가져다 깔아 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곳으로 기어들어 생쥐처럼 낮잠을 자곤 했다. 속옷은 하나같이 부드럽고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났다. 장에는 그런 옷이 얼마든지 쌓여 있어 내가 한 두 가지씩 털어내도 어머니와 누이들은 알아내지 못했다. 어두컴컴한 그 광 속 굴에 들어앉아 이것저것 부드러운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거기서 흘러나오는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없었다. 그러다 나는 스프르 잠이 들고, 잠이 깨면 다시 생쥐처럼 몰래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어느 날은 거기서 너무 오래 잠이 들어 있다가 아버지가 비춘 전깃불 빛을 받고서야 눈을 떴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광을 나가더니 나를 남겨 둔 채 문에다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그 문은 이틀 뒷날 저녁 때 열렸다. 나는 광에다 나를 가두어 놓은 동안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문이 열렸을 때, 거기 있던 옷가지는 한 오라기도 성한 것이 없이 백 갈래 천 갈래로 찢기어 있었다.⁸

주인공이 몰래 숨어들어 잠을 자는 곳은 광 속이다. 그 광 속 벗삼 사이의 작은 틈은 주인공에게 더없이 아늑하고 편안한 모성의 공간이며 동시에 쾌락의 공간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어머니와 누이들의 속옷은 향기롭고 부드러워 황홀하고 비밀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전깃불이 비춰지는 순간 모든 것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가장 아늑하던 모성의 공간은 감금의 공간이 되고 만다. 이는 불빛을 비추는(억압하는) 타자와 비춤을 당하는(억압되는) 주체 사이의 권력 관계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광과 같은 공간으로 「병신과 머저리」에서는 동굴을 들 수 있다. 형이 쓰는 소설 속에서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동굴 안이다. 전쟁 중의 패잔병으로 낙오된 ‘나’와 김일병이 숨어들어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동굴은 그러나 폭력적인 타자인 오관모의 등장으로 치유의 공간이 아닌 억압과 폭력의 공간이 된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동굴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김일병에게 죽음 자체를 의미하게 된다.

이청준 소설에 등장하는 광, 병원, 거울, 동굴, 군대, 자화상을 비추거나 그려지는 화폭, 화실 등은 라캉이 주장한 거울 단계를 주체로 하여금 거쳐가게 하는 매개의 공간 및 매개체에 해당한다. 특히 소설 속에서 인물들이 거하는 장소의 경우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 주체와 관련된 소외의 장소로 볼 수 있다. 라캉에 의하면 응시가 발생하는 타자적 장소에서 주체는 소외에 의해 구축되는 동시에 그 존재 내부에서 주체는 소외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장소들은 라캉이 주장한 바, “갈등과 불화의 지대이며 끊임없는 투쟁의 장소”¹⁰에 해당하는 ‘자아’의 은유라고 볼 수 있다.

공간이라는 개념 또한 권력과 연관된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은 마음대로 장소를 결정하고, 배치하며, 공간을 구획 짓고, 분리시키기도 하며 시간마저도 권력에 의해 제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권력의 훈련 장치는 그 장치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힘으로 가동되는데 그들의 힘은

8. 이청준(1979), 「퇴원」, 『잔인한 도시』, 흥성사, 240쪽.

9. 손 호머(2006), 『라캉 읽기』, 김서영 역, 은행나무, 56~57쪽 참조.

10. 손 호머, 같은 책, 64쪽.

권력의 법칙에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하더라도 감옥의 죄수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는 이미 정치화되고, 예측화되고, 길들여지고, 혼란되고, 통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굳이 권력의 주체와 객체를 아버지와 주인공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이미 자기 안에서 권력의 매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감시의 시선은 복제되어 작중인물의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시선과 폭력이 「퇴원」에서는 광 속에서의 전깃불 체험으로 주인공에게 체현된다면 「병신과 머저리」에서는 특히 이등중사 오관모의 '배암같은 인상의 독살스러운 눈'을 통해 소설에서 재현된다. 오관모는 평소 "부대에 신병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짜고짜 '세모눈'을 해 가지고 대검을 코 밑에 꽂아 대며 '내게 배를 내미는 놈은 한칼에 갈라놓겠다'고 부술 듯이 위협하여 기를 꺾어 놓았"고 김일병이 배속되어 왔을 때 "김일병을 엎드려놓고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서투른 백정 개잡듯 정신없이 매질"을 한다. 그리고 그는 전쟁 중에 적지에 고립되자 입을 줄이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소설 속의 '나'를 탐색의 대상으로까지 여기며 접근해 오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즉 오관모는 현실에서 가해자이며 억압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한 억압자의 죽음을 형이 소설의 결말로 제시했다는 것은 현실에서 하나의 이상(소망)을 꿈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설 밖의 오관모는 여전히 살아 있었으며 형 앞에 버젓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형'은 소설을 불태우고 만다. 작가는 작품에다가 자기의 이상을 그려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와 역설을 액자형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작품에서 오관모뿐 아니라 형 또한 소설 속에서 그러한 폭력을 관조하는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김일병에 대한 더한 매질과 학대를 재촉하고 거기에 시선을 실어주는 이른바 폭력에 가담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은 매질을 일부러 말리지도 않았으며 전쟁 중에 오관모의 첫눈 오는 날 김일병을 헤치자는 말에도 이렇다 할 거부감이나 저항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폭력에

방관 및 가담한 자로서의 형의 죄책감은 전쟁 후 외상으로 남게 되며 그에게 소설을 쓰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오관모의 폭력을 시중 방관하는 형의 시선 또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시선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시선은 라캉의 응시와도 연관된다.

라캉은 시선(look)과 응시(gaze)¹¹를 다른 차원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무의식과 의식의 분열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시선이 의식의 차원이라면, 응시는 무의식의 차원에 놓여 있는 것으로 주체는 응시를 볼 수 없고 언제나 그것에 의해 보여질 뿐이다. 개인이 느끼는 타자의 응시란 바로 무의식의 사회적 차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선과 응시는 변증법 속에서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유혹한다. 사랑을 하면서 나를 봐주기를 원할 때 내게 매우 불만족스럽고, 항상 결핍되어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곳에서 당신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시는 자신을 바라본다. 여기서 응시란 정확히 말해서 사르트르가 말하는 나를 놀라게 하고 내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응시¹²인 것이다. 이러한 타자의 응시는 소설 속에서 아버지의 전깃불 그리고 오관모의 시선과 방관하는 형의 시선 등으로 표상된다. 타자의 응시는 어머니와 나를 분리시키고 나는 타자에 의해 공포와 수치심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며 환부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

한편 「퇴원」에서와는 다르게 「병신과 머저리」에서는 저항하는 시선으로서의 김일병의 「파란불꽃」의 시선이 독특하게 하나 더 상정되어 있다. 김일병은 다음과 같은 인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11. 응시(gaze)란 바라보는 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시각 욕동의 대상이 된다. 응시는 더 이상 주체 쪽이 아닌 대타자의 시선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당신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딜런 에반스(1998), 『라캉의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213쪽 참조.

12. 자크 라캉(2005), 『욕망이론』, 권택영 엮음, 문예출판사, 207~235 참조.

얼굴의 선이 여자처럼 곱고 살이 두꺼운 편이었는데, ‘콧대가 좀 높고 고집스럽게 높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김일병은 관모가 세모눈을 지을 필요도 없을 만큼 유순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¹³

김일병은 여자처럼 곱고 연약한 인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집스럽게도 콧대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저항적 인물유형임을 암시한다. 그는 오관모의 폭력과 억압에도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 이러한 김일병의 의기에 오관모는 더욱더 자극을 받아 일방적이고 광적인 매질을 가한다.

그러나 김일병은 무서울 정도로 가지런한 자세로 매를 맞고 있었다. 김일병이 오관모의 매질에 한번도 굴복한 일이 없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것이 더욱 관모를 약 오르게 한다고는 했으나, 나는 당장 눈앞에 숙연해 있는 김일병의 자세를 믿을 수가 없었다. 김일병의 자세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았다. (중략) 그때 내가 김일병에게서 보았던 것은 김일병의 눈빛이었다. 허리 아래에서 타격이 있을 때마다 김일병의 눈에서는 파란불꽃 같은 것이 반짝이고 지나갔다는 것이다.¹⁴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매를 맞을 때 마다 눈에서 빛나는 ‘파란불꽃’은 김일병의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의에 대한 혹은 자유에 대한 신념으로 볼 수 있다. 형이 이러한 눈빛을 보고 관모가 매질을 더 세게 할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게 되는 것은 자신의 지배계층의 억압과 폭력에 저항할 수 없는 나약함에서 오는 김일병에 대한 열등의식일 수도 있고 혹은 김일병¹⁵

13. 이청준(1979), 「병신과 머저리」, 『잔인한 도시』, 흥성사, 210쪽.

14. 이청준, 앞의 책, 211쪽.

15. 특히 김일병의 경우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권력과 감시와 처벌에 저항하는 주체로 그려져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김일병은 결국 외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됨으로써 현실에서는 패배하여 죽음을 맞게 되나 그로인해 그가 저항하는 외부의 세계의 억압이

의 저항의 눈빛의 한계를 보고 싶은 데서 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인물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다. 타자의 시선에 저항하는 눈빛은 결국 희생되기에 이른다. 타자의 폭력 나아가 세계의 폭력 앞에 저항의 몸짓은 너무도 미미할 뿐 어떠한 희망이나 변화도 가져올 수 없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그러한 나약함의 파멸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만큼 작가가 살고 있는 현세계가 거대한 억압과 폭력의 세계임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그 희생의 함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환부의 은폐로 기능하는 자아망실

「퇴원」의 ‘나’와 「병신과 머저리」에서의 동생인 ‘나’는 자신의 환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극적이고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인물군이다. 이들은 통증을 있으나 어렴풋하여 그 통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아정체성과 환부의 ‘얼굴’이 없는 자들인 것이다. 「퇴원」에서 ‘나’는 아버지의 폭력과 권력에 노출된 이후 정신적 외상으로 인하여 자아망각이라는 병증을 앓게 된다. ‘나’는 병원에 누워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막연한 상념에 빠져 지낸다.

무엇 때문에 거기서 생각을 잘라버릴 수 없는지 모르겠다. 내게는 그 비슷한 무얼 잊어놓은 기억조차 없는데, 마치 그런 것이라도 찾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착각이다. 착각보다 더 막연하다. 이 조그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풍경의 이미지는 그만큼도 구체성이 없었다. 한 가지만 더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히려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 인물의 희생적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 한다면, 그 건물들 사이로는 U병원의 탐시계가 건너다보이는 것이었다. 그것도 오래 전에 고장이 나서, 항상 같은 점에만 서 있는 두 바늘을 아주 떼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중략) 눈만 감으면 어떤 상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을 뜨면 그것은 벌써 그 시계탑이며 블록의 담벼락 거리로 멀찌막이 나앉아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¹⁶

위의 인용부분은 소설의 첫 부분으로 주인공인 ‘나’가 병실의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상념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입원 후 며칠이 지나자 사실상 위의 통증은 사라진다. 그러나 창문을 향한 기이한 상념은 계속 되는데 그에게 있어 위궤양이 아닌 진짜 병적 징후는 다름 아닌 전깃볼 체험이 근원이 되어 갖게 되는 일종의 자기망각이다. 그렇다면 창문을 통해 상념의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나’는 병적 징후의 근원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는 두 바늘을 잃어버린 탐시계처럼 자기를 잃어버린 망각증 환자인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인 미스 윤의 도움으로 자기 망각에서 깨어나 과거의 사건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된다. 미스 윤이 건네주는 거울과 각성제는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아를 상기시켜주는 매개물이다.

「선생님은 아마 적적하실 때 거울을 들여다보신 적이 없으신가봐요. 거울을 들여다 보느라면 잃어진 자기가 망각 속에서 살아날 때가 있거든요.」

「참 괴상한 취미로군요.」

「그렇게 생각되실 지도 모르죠. 제가 틀리지 않다면 선생님은 분명 내력 깊은 이야기가 있으실 분인데, 그 이야기가 너무 깊이 숨어버린 것 같거든요.」¹⁷

16. 이청준, 앞의 책, 233쪽.

‘나’에게 내력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미스 윤의 말과 그녀가 건네 준 거울을 통해 ‘나’는 군대에서의 기억을 하나 끄집어낸다. 그것은 다름 아닌 ‘뱀잡이’의 기억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미스 윤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주는 ‘내력 깊은 이야기’는 군영시절에 ‘뱀잡이’의 별명을 얻게 된 기억이 된다. 뱀잡이에 대한 기억은 주인공이 유일하게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시절의 기억이다. 사실 주인공은 현실에 대한 도피와 준에게서 벗어날 요량으로 군대에 지원해 들어간다. 그런데 군대라는 공간은 그에게 오히려 더욱 강한 억압의 장소로 그를 더 광기어린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는 장교와 하사관들의 뱀가죽 지휘봉을 위해 온 산을 뒤지며 광적으로 뱀을 잡으러 다닌다. 뱀을 잡는 이야기는 잔인성과 강렬한 적군사살 의식고취와 적군의 적개심을 유발하여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뱀사냥의 기백은 사회생활에서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이용되어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죄질감에 빠져 있다. 이러한 군대시절의 이야기는 사실상 자신의 ‘내력 깊은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최초의 자기 발화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비춰지며 이 사건을 통해 미스 윤의 눈에는 ‘뽀얀 것이 서려’ 있게 된다.

또한 두 작품 모두에 나오는 뱀 이미지(뱀잡이와 오관모의 외모 묘사)의 상징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뱀은 일반적으로 생명의 원시단계 또는 남근을 상징한다.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의 비정상적인 혼란 곧 잠재력에 대한 반동을 고통스럽게 표현한다. 따라서 ‘내’가 뱀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행동은 무의식의 혼란을 종식시키려는 혹은 아버지의 남근(군대의 상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본인의 남근을 거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을 제거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행해졌던 뱀잡이 역시 군대라는 상황 속에서 상관들의 명령과 협박이 거듭 됨에 따라 ‘나’의 자발이 아닌 억압적인 강요가 되고 만다.

「병신과 머저리」는 직업이 의사이면서 소설을 쓰는 형이 (이미 가망이

17. 이청준, 앞의 책, 246쪽.

없던) 소녀환자 수술에서 실패하여 병원문을 닫게 된 것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된다. 형은 소녀의 죽음을 계기로 소설을 쓰게 되며 그 소설의 내용이란 언제가 '내'게 말한 적이 있는 6.25 전쟁 때 한 동료를 죽이고 탈출해 온 이야기이다. 여기서 형의 소설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형은 오관모에게서 김일병을 구해내지 못한 죄책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소설이란 관념을 통해서나마 자신이 직접 오관모를 살해함으로써 그 죄책감을 씻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관모가 나타나기 전 어찌됐건 그는 소설의 결말을 완성하고 병원을 다시 운영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전쟁체험이라는 과거의 정신적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혹은 죄의식을 덜기 위해 소설을 썼던 것이다. 게다가 동생이 자신의 소설을 틈틈이 읽는 것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감추거나 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고백과 상처 드러내기를 통한 치유의 적극적인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형은 「퇴원」의 '나'와도 다르고 동생인 '나'와도 다르다. 자신이 치유해야 할 환부와 통증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는 환자이면서 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씌여지는 소설은 형에게 있어 '내력 깊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내력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에야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거울을 통해 드러나는 얼굴의 눈, 코,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압도하고 있는 화폭을 자유롭게 메꿔나갈 수 있는 진정한 얼굴을 발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설쓰기는 형에게 있어 자아의 각성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자아각성과 관련하여 이 두 작품에 드러나는 여성인물에 대해 살펴보자. 미스 윤과 혜인은 둘 다 남성인물들에게 얼굴 없는 환부를 일깨워주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능을 한다. 물론 미스 윤의 경우 병원의 간호사로 주인공 '나'를 수시로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성제와 거울을 건네주는 등 주인공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아를 찾도록 조력해주는 역할이 여기서는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또한 '내가 인식하는 미스 윤은 어머니의 무의식적 변형으로도 받아들여지는데 미스 윤의 '사랑스런 하얀귀, 시원한 발걸음, 부드러운 유방, 머리 냄새'

등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모성적인 편안함을 통해 병원은 '나'에게 어릴 적 숨어들던 광의 이미지를 재현해 준다. 따라서 병원이라는 공간도 어릴적 광에서의 체험에서처럼 결국 이중적인 공간(편안함과 노출과 감금으로써의)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미스 윤은 나에게 자아각성을 일깨워주는 인물이며, '나'의 과거를 들어주는 귀를 가진 인물이며, 평온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인물이다.

혜인의 경우 미스 윤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동생인 '나'로 하여금 결혼 직전 전해주는 편지¹⁸를 통해 형과는 구별되는 환부를 일깨워주는 동시에 각성과 교시를 주는 존재이다.

6.25 전상이 자취를 감췄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선생님의 형님은 아직도 그 상처를 앓고 있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부를 지닌, 어찌면 처음부터 환부다운 환부가 없는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환자일까요. 더욱이 그 증상은 더 심한 것 같았어요. 그 환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이 무슨 병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병은 더 위험한 거예요. 선생님의 형님은 그 에너지가 어디에 근원했던 자기를 주장해 왔고, 자기의 여자를 위해 뭔가 싸워 왔어요.¹⁹

위의 편지에서 보듯 혜인은 뚜렷한 환부를 가진 형의 아픔과 환부다운 환부가 없이 앓고 있는 '나'를 비교하고 있다. 6.25전상이라는 환부를 치유하고자 노력하는 형과는 달리, 앓고는 있지만 그 아픔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알 수 없어 치유할 능력도 없이 상처를 곱들기만 할 뿐인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나'를 비교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혜인은 미스 윤²⁰과 일부 닮아 있다. 그러나 미스 윤의 경우 퇴원을 결심 한 '나'에게

18. 혜인이 전해주는 '편지'는 보다 직접적인 발화에 해당하지만, 「퇴원」에서 미스 윤이 나에게 빌려준 '손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19. 이청준, 앞의 책, 221쪽.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젠 준이 아닌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마지막 말을 당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생인 '나'를 자기주장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는 이유로 은근히 비난하고 어떻게든 행복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는 헤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환부의 양상과 의미: 치부(恥部), 경계(境界)

「퇴원」에서 '나'의 병명은 '위궤양'과 '자아망각증'이다. 이들 병증은 둘 다 어릴 때 입은 정신적 외상에서부터 비롯된다. 특히 공복 시에만 찾아오는 위의 통증은 위장병이라기 보단 끼니를 거르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찾아오는 신경증적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틀 동안 광에 감금해 둔 채 밥을 굶긴 아버지라는 억압자와 감시자에 대한 항거의 표시이기도 하며, '이틀 굶겨도 배고픈 줄 모르는 놈'이라는 아버지의 말에 대한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의 기제일 수도 있다. 이보영은 이청준 문학을 '허기의 문학'이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허기란 불만에 싸인 생명력으로 시원(始源)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회상과 동경을 뜻한다. 따라서 그는 이청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시원의 고향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과 현실의 모순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²¹

이처럼 「퇴원」에서의 주인공 '나'의 환부는 부끄러움과 허기의 원체협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편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버지를 거부하면서도 아버지에 순응하기 위한, 변명이라도 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빚어진 것이라 할

20. 「퇴원」에서 미스 윤은 '나'에게 자신을 비추어보라며 거울을 가져다 준다. 거울은 헤인이 전해준 편지와 마찬가지로 환부의 원인을 모르는 '나'에게 각성과 교시를 주는 메타포로 기능한다. 미스 윤과 혜윤은 환부를 모르는 '나'에게 각성을 주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닮아있지만 치료와 각성을 단념하는 혜윤보다는 미스 윤의 경우, 기다림과 인내를 내비친다는 점에서 모성적 대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1. 이보영(1972), 「始源의 摸索」, 『현대문학』, 12쪽.

수 있다. 통증과 외상은 결국 부권의 강압과 폭력에 의해 발현된 수치와 허기의 원체험에서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병신과 머저리」에서의 형과 나의 환부는 어떠한가. 이도 마찬가지로 형의 경우는 「퇴원」의 ‘나’와 같은 종류의 환부를 가지고 있다. 형은 오관모로 표상되는 외부의 억압적인 현실에 저항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김일병을 구하지 못한 데서 오는 죄의식이 환부를 이루고 있다.²² 이들에게 환부의 근원은 수치심과 죄의식에서 연유된 즉 치부(恥部)로서의 환부(患部)인 것이다. 그러나 동생의 경우는 다르다. 이는 과거의 수치심이나 원체험과는 상관없이 통증의 근원이나 얼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형의 그것을 들여다봄으로써 막연하게나마 통증만을 동일시 할 수 있을 따름인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념의 그것이다. 이 두 소설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점은 치부가 근원이 되는 환부는 자아가 그 치부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직시하고, 인정할 때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지만, 근원과 힌트 자체를 알 수 없는 환부는 관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치유가 훨씬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두 소설에서의 작중인물들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퇴원」에서의 주인공 ‘나’가 과거에 머물렀던 공간으로는 집과 학교가 있었고, 땅이 있었고, 여기서 벗어난 주인공이 도피처로 찾아간 서울이라는 도시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지원해 들어간 군대라는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제대 후 현재 머무는 곳은 친구 ‘준’이 운영하는 병원의 한 다인병실이다. 주인공 ‘나’는, ‘나’를 감시하고 가두는 ‘안’의 공간에서 끊임없이 ‘바깥’의 공간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결국 ‘내가 찾아 온 곳은 다름 아닌 준의 병원이라는 또 다른 ‘안’의 공간이다. 그렇다면 결국 바깥의 공간이란 존재할까.

22. 김일병의 경우 오관모의 경우처럼 온전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다. 액자 형식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액자 형식의 안과 밖,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김일병으로만 불리는데, 이는 형 스스로가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통명사에 가까운 김일병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무의식의 억압 즉 불안의 극대화를 막기 위한 방어기제로도 볼 수 있다.

병실의 바깥으로 퇴원해 나간다고 해서 주인공이 느끼는 세상과 타자에 대한 억압과 감시와 부적응이 사라질까. 과연 그는 자유와 해방, 망각했던 자아를 (되)찾을 수 있을까.

주인공으로 하여금 무심코 상념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병실의 창문을 경계로 하여 먼저 병실의 ‘안’을 들여다보자. 3인용 병실에는 가구처럼 한쪽 벽을 향해 꼼짝없이 누워 있는 병명도 모르고 얼굴조차 본적이 없는 죽음을 앞둔 환자와 쉴 새 없이 조잘거리는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환자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는 그의 아내가 옆에 붙어 앉아 있고, 그 옆 병상에는 장막에 물이 고여 하루건너 링거병으로 물을 뿜아내야 하는, 먹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먹는 청년과 쉴 새 없이 그를 간호하는 노인이 있다. 가구처럼 붙박혀 있는 사내의 아내만이 나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오지만 사실상 별 의미 없는 대화의 주고받음으로 병실의 공간은 침묵의 공간이나 다름이 없다. 3인실로 옮기기 전 독실에 있을 때에는 완벽하게 혼자인 상태로 일체의 언어도 창문도 없는 소통부재의 공간에 자기를 망각한 채로 갇혀 지냈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다인 병실을 옮긴 후에는 무의미한 대화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주인공 ‘나’의 의식 상태가 자아의 내부와 외부에서 점차적으로 각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창문을 통해 내다보는 병실 ‘밖’의 세상은 어떠한가. 단지 ‘착각보다 더 막연한 단조로운 풍경’일 뿐이지만 확실한 점은 창문이 주인공에게 어렴풋한 상념이나마 자꾸 불러일으킴으로써 잊고 있던 자아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문은 병원 안과 병원 밖,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 과거 속의 광 속에서의 간헐과 번어남, 자아의 내부와 외부, 주체와 세계를 경계 짓는 그러면서도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끔 시야를 열어주는 창문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이어주는 계기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문이 없는 공간인 광, 군대, 1인 병실 등은 현실 세계에서의 폐쇄성과 주인공의 의식 내부에서의 폐쇄성을 동시에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 의 이미지는 미스 윤이 전해주는

손거울과도 연관되며, 「병신과 머저리」에서는 동생의 화폭으로 변형되어 제시되고 있다.

나의 일은, 그 나의 화폭은 깨어진 거울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있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망설이며 허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영영 찾아내지 못하고 말 얼굴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의 아픔 가운데에는 형에게서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었다.²³

동생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얼굴 또는 카인이나 아벨과 같은 원시적인 얼굴 형태를 찾아 그것을 그리고자 하지만 화폭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고 '나'를 점점 억압해오며, 스케치 해놓은 둥근 윤곽마저 형에 의해 찢겨지거나, 종래에는 알 수 없는 환부의 통증으로 인하여 화폭 자체가 '거울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창문이나 화폭이 이처럼 주인공 내부의 '안'과 '밖'을 매개해주는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 '창문의 이미지'마저 하나의 단어의 개념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종의 자기요구를 깨닫게 하는 계기는 바로 다른 아닌 언어에 대한 사유에서 비롯된다.

모든 요구는 언어가 허용될 수 있는 한계 이전의 것이다. 팬터마임(중략) 그렇게도 나의 머리에 맴돌기만 하던 창문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은 어떤 경험의 회상이 아니라 강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진 이 단어의 개념에 불과했던 것이다. (중략) 언어가 완전히 소멸된 거기에는 슬프도록 강한 행동의 욕망과 향수만이 꿈틀거렸다. 허나 나에게서는 이미 그 욕망마저도 죽어버리고 없는 것 같다. 완전한 자기망각. 그렇게 나는 시체처럼 여기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이다.²⁴

23. 이청준(1979), 「병신과 머저리」, 『잔인한 도시』, 홍성사, 229~230쪽.

24. 이청준, 앞의 책, 252쪽.

위의 인용 부분은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청년의 절규에 가까운 말을 들으며 주인공이 느끼는 생각들이다. 자기요구 즉 먹고는 싶지만 주위의 어떤 권유에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청년을 보면서 '나는' '자기요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언어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기에는 '슬프도록 강한 행동의 욕망과 향수'만이 꿈틀거린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미 그러한 욕망마저도 죽어버리고 없는 것 같은 완전한 자기망각의 상태로 시체처럼 누워 있었던 것이다. 비로소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과거에 대한 망각보다 현실에 대한 망각이 더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었음을 이윽고 깨우치게 된다. 탑시계의 바늘 또한 끼워져 제대로 된 시간을 가리키며 돌아가고, 그걸 바라보는 주인공의 내면의 시간도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는 이제 막연한 풍경 없는 풍경이 아닌 창문 밖의 한국군의 월남파병이라는 구체적인 외부 현실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이상한 흥분까지 느끼게 된다. 그리고 미스 윤의 눈에 어린 '뺨얀 것'을 보고 그래도 한번쯤은 다시 이곳 병원에 들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거리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으로 소설은 결미에 이른다. 결국 환부와 병증에 대한 자기 인식과 심리적 위축 및 망각은 주체가 타자 및 세계와 맞서거나 그에 적응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경계선상의 상징적 과정, 즉 자기투쟁의 이니시에이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이청준 초기 소설에 나타난 환부의 의미를 그 원인과 양상 차원에 살펴보는 데 두었다. 이에 이청준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환부의 양상을 들여다본 바, 그 통증의 원인이 정신적 외상이라는 원체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원체험은 시선과 관련된 경험과 기억에 주로 연관되는데, 이는 아버지를 비롯한 외부의

시선 및 응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환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또한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폭력과 배재, 감시는 인물로 하여금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시키며,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야말로 환부의 증상으로 발현됨과 동시에 장기망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청준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수치심과 죄의식을 유발하는 타자로서 외부권력과 감시를 푸코가 말한 미시권력과도 연관지어 논의해 보았다.

본문의 1장에서는 환부의 원인이 되는 시선과 응시와 관련하여, 감시와 억압의 시선을 외부의 타자에서 비롯된 거대한 시선과 분열된 주체 내에서 작용하는 미시적 내적 시선 등으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 또 하나의 복제된 시선으로 규정하여 검토해 보았다. 2장에서는 환부를 은폐시키기 위한 억압으로서의 인물들의 자아망각에 대하여 3장에서는 환부와 치부, 상처의 안과 밖, 상처를 둘러싼 경계의 의미에 대해 작품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요컨대 필자는 이청준 소설의 전반에 심리적인 원형이 되고 있는 사유와 이미지들을 초기 단편에 나타난 환부의 원인 및 기능과 의미와 양상까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서 반복 등장하는 ‘도피하는 나’와 ‘찾아가는 나’가 만나는 지점이 과연 어딘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끊임없는 질문과 답 찾기의 과정과 여정, 언어에 대한 탐구, 작가(장인)로서의 자의식과 자기 서사로서의 글쓰기의 투영과 투사만이 작중 인물들과 작가의 운명이 맞물린 채, 거대한 수레바퀴를 같이 돌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형질의 거대하고 심오한 궤(트라우마, 원형)의 일부를 초기 단편 소설에 나타난 상처와 통증, 환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바 이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 이청준(1979), 「退院」, 『잔인한 도시』, 홍성사
_____, 「병신과 머저리」, 『잔인한 도시』, 홍성사
강준수(2015), 「〈에쿠우스〉와 〈퇴원〉에 나타난 정신적 외상」, 『외국문학연구』, 제59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김우영(2014), 「‘언어’와 분석 사이, ‘행위’하는 몸」, 『민족문학사연구』, 54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김은정(2018), 「질병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청준의 <퇴원> 읽기」, 『우리말글』, 제77집, 우리말글학회
김현(1980), 「이청준에 대한 세 편의 글」,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서영채(2016), 「가해자의 자리를 향한 열망과 죄책감」,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호, 한국현대문학학회.
이보영(1972), 「始源의 摸索」, 『현대문학』
이승준(2002),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혜성(2002), 『이청준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영우(2009), 「경험적 사실과 허구적 진실」, 『동양어문학』, 제52집, 동양어문학회
채대일(2003), 『이청준 소설의 죄의식과 고백 양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소정(2007), 『현대소설에 나타난 심리적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 이청준, 오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지혜(2010),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징후적 ‘배알이’와 타자의 시선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채대일(2012), 「이청준 <퇴원> 연구 - 포트 - 다 놀이 하는 주체」, 『시학과 언어학』, 제22호.
딜런 에반스(1998), 『라캉의 정신분석 사전』, 김종주 외 역, 인간사랑
미셸 푸코(1990), 『성의 역사 - 제1권 삶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
_____(1993), 『임상의학의 탄생』, 홍성민 역, 인간사랑
손 호머(2006), 『라캉 읽기』, 김서영 역, 은행나무
자크 라캉(2005), 『욕망이론』,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장 라플랑슈, 장 베르트랑 폰탈리스(2006), 『정신분석 사전』, 임진수 역, 열린책들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이청준의 데뷔작인 「퇴원」과 초기 대표작 「병신과 머저리」 두 개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이청준 초기 소설에 나타난 환부의 의미를 그 원인과 양상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부와 외부의 환부를 들여다본 바, 그 통증의 원인이 정신적 외상이라는 원체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원체험은 시선과 관련된 경험과 기억에 연관되는데 아버지를 비롯한 외부의 시선 및 응시 또한 환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폭력과 배제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시키며,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야말로 환부의 증상인 동시에 원인이 되는 바, 이청준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수치심과 죄의식을 유발하는 타자로서 외부권력과 감시를 푸코가 말한 미시권력과 연관지어 논의해 보았다.

본문의 1장에서는 환부의 원인이 되는 시선과 응시와 관련하여, 감시와 억압의 시선을 외부의 타자에서 비롯된 거대한 시선과 인물의 분열된 주체 안에서 내적으로 작용하는 매커니즘으로 보는 미시의 내적 시선 등으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를 또 하나의 복제된 시선으로 검토해 보았다. 2장과 3장에서는 환부를 은폐시키기 위한 망각과 진통으로서의 인물들의 자아망각, 한편 자아를 되찾기 위한 노력 및 조력에 의한 각성을, 끝으로 4장에서는 환부와 치부, 상처의 안과 밖, 상처를 둘러싼 경계의 의미에 대해 작품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요컨대 필자는 이청준 소설의 전반에 심리적인 원형이 되고 있는 사유와 이미지들을 초기 단편에 나타난 환부의 의미와 양상을 통해 짚어보았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서 반복 등장하는 ‘도피하는 나’와 ‘찾아가는 나’가 만나는 지점이 과연 어딘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끊임없는 질문과 답 찾기의 과정과 여정, 언어에 대한 탐구, 작가(장인)의 자의식과 자기 서사로서의 글쓰기의 투영과 투사만이 작중 인물들과 작가의 운명이 맞물린 채, 같이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그 캐(트라우마, 원형)의 일부를 초기 단편 소설에 나타난 상처와 통증, 환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경계 세계에 놓인 불안한 존재들의 환부의 의미: 이청준의 「퇴원」, 「병신과 머저리」를 중심으로

바 이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키워드: 환부, 환부의 원인, 죄책감, 수치심, 시선, 응시, 경계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Affected Areas in the Early Novels of Yi Chong-jun: “Discharge” and “A Fool and An Idiot”

Hyoeun Kim (KyungHee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significance of affected areas that appear in the early novels of Yi Chong-jun and their causes and aspects. The cause of their pain is found to be their original experiences of mental trauma. In particular, such original experiences are mainly connected to experiences and memories associated with the stare of others, especially that of their fathers. Such violence and exclusion produce feelings of shame and guilt and such shame and guilt are both the symptoms and causes of affected areas. I connected microscopic power of Michel Foucault with external power and surveillance Michel Foucault which produce feelings of shame and guilt in the characters appearing in the early novels of Yi Chong-jun.

The first chapter of this article, with regard to the stare that become the causes of affected areas, divides surveillance and oppression into macroscopic focus that stems from others and microscopic internal focus that acts within the divided agent, and the latter was prescribed and examined to be another form of duplicated focus. The second chapter observed the self-effacement of the characters as a form of oblivion and pain to conceal their affected areas. The third chapter observed their efforts to recover their selves and their supported arousals, and lastly, the fourth chapter observed the meanings of boundaries surrounding wounds, affected areas and weaknesses, and the inner and outer parts of wounds through text analysis.

To sum up, I examined the grounds and images that are the psychological form of Yi Chong-jun's novels through the meanings and aspects of affected areas which appear in his early short storie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know where 'the escaping me' and 'the finding me' which repeatedly appear in his texts meet, and the only thing that could be known was that the process and journey of continuous question and answer finding, explorations of language, the writer's (master artisan's) sense of identity and the projection of writing as their own narration were working together as the fates of the characters and writer being interlock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observed the part of that (trauma, original form) focusing on wounds, pain, and affected areas appearing in early short novels.

Key words: affected area, the cause of affected areas, guilt, shame, focus, looks, self-effacement, boundary

Received : 31 January 2019
Reviewed: 20 February 2019
Accepted : 20 February 2019